



제주소방 주·정차 단속권한 ‘갑론을박’

도소방본부, 행정 당국에 “단속권 부여 검토” 요청
도 ‘수용’ 입장 속 행정시는 “시민 혼란 우려” 난색

제주지역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주는 방안을 놓고 제주도와 행정시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 소방공무원 중 유일하게 제주 소방공무원만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4일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 각각 공문을 보내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제주도 소방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사이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통행이 곤란해져 화재 진압이 늦춰진 사례가 6건에 이르고 있다”면서 “특히 제주 소방공무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제주지역에는 기초자치단체 격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가 있지만 이들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도로교통법이 인정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제주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맡고 있다. 제주도 사무 위임 조례에 의해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가 제주도에서 행정시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탓에 제주도

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은 독자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다만 행정시가 합동 단속을 할 때 참여하는 수준에 머문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선 우리가 강제 견인할 수 있지만, 불이 난 뒤에 강제 견인하는 것이 (화재를 조기 진압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소방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이 있다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소방본부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권한이라는 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면서 “(소방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은) 조례 개정 업무가 제주도에서 행정시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탓에 제주도

그러나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전 양 행정시는 반대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동일한 사무가 2개 기관에 위임되면 업무 처리의 일관성이 줄고 이원화 된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면 시장 명의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 소유주는 이 과태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소방공무원이 단속 권한을 갖게 돼도 과태료는 시장 명의로 나갈텐데, 이럴 경우 차량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상대방이 모호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의 성격을 따는 사무의 특성상 단속 권한이 이원화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민기자 hasm@ihalla.com

“파업 장기화… 건설 경기 파장 커” 화물연대·시멘트업계 중재 나선 道

내일 건설회관서 첫 회의

제주특별자치도가 화물연대와 현재 파업 중인 시멘트 업계 간 첫 대화의 물꼬를 튼다.

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제주건설회관에서 벌크시멘트트레이러(BCT) 파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도와 화물연대, 시멘트 업계가 참여하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5일 원희룡 도지사과 BCT 노조 측 대표자 간 면담을 통해 도-BCT운전자-시멘트업계가 참여하는 대화기구 구성을 협의한 후 실무협의를 통해 이 같은 회의를 마련했다.

화물연대는 최상우 제주지부 BCT분회장, 시멘트업계에서는 김영민 한국시멘트협회 이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 BCT

운전자들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국토부 고시 안전운임제가 단거리 운송을 하는 도서지역의 여건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주지역 현실에 맞는 요금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4월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반면 시멘트 업계는 정부의 안전운임제에 맞게 운송운임을 지급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운송운임 인상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시멘트업계 전체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파업 사태 장기화로 시멘트 원료가 공급이 되지 않아 레미콘 생산이 전면 중단되고 건설 공사 중단 속출 등 도내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장이 큰 상황”이라며 “BCT 파업 조기 해결을 위한 중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내달부터 교사지원단 활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중심 수업과 과정중심평가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6월부터 ‘교실다움’ 교사지원단 활동에 나선다.

‘교실다움’은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다함께 움직임’의 줄임말로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를 지원하는 핵심 교사 지원단을 말한다. 초등 교실다움은 팀당 3~7명의 핵심 요원이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며 역량을 키우고 교육과정·수업·평가 내실화의 동력으로 활동한다.

특히 ‘교실다움’ 교사지원단은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실습 위주의 평가자집 제작, 교사별 과정 중심 평가 강사 지원으로 교사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팽생이모자반 처리 진땀 18일 제주시 이호동 이호대우해수욕장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팽생이모자반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골든타임 사수”… 운영 나선 ‘119구조대 서부분대’

제주소방서가 제주시 서부분역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119구조대 서부분대’를 본격 운영한다.

제주소방서는 ‘119구조대 서부분대’를 신규 운영함에 따라 18일 노형119센터에서 소규모 발대 행사를 열었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연동·노형

동·외도동의 서부분역에는 제주시 인구의 33.4%가 거주한다. 제주도 전체 고층건축물(11층 이상)의 70.6%, 특정소방대상물의 14.4%가 위치한다. 또 2019년 제주소방서 구조출동 건수 중 서부분역 구조출동 건수는 전체 건수의 절반(46.7%·1793건)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119구조대가 제주시 이도동에 위치해, 서부분역 출동 시 교통체증 등의 요인으로 현장 도착이 지연돼 골든타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소방서는 전문 구조인력 6명으로 구성되며 생활안전구조 차량 및 43종 87점의 전문 구조 장비를 갖춘

‘119구조대 서부분대’ 운영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제주시 동부권역은 기존의 119구조대가, 서부권역은 ‘119구조대 서부분대’가 출동하는 이원화 체제로 변화된다.

김영호 제주소방서장은 “119구조대 서부분대 운영으로 서부권역 인명구조에 보다 효율적인 출동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운영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보완해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이태원 등 다녀온 215명
검사 결과 모두 ‘음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에서 서울 이태원 등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방문 이력으로 검사를 받은 인원이 18일 오전 10시 기준 총 216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5일 기준 제주도에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인원은 196명이다. 이후 지난 주말동안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의료기관을 통해 추가로 20명의 검사가 이뤄짐에 따라 제주지역 내 이태원 등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방문 이력으로 검사를 받은 이들은 총 216명으로 늘었다. 도는 추가 검사가 이뤄진 20명에 대해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이로써 도내 14번째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15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1대 1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태원기자

감굴·만감류 영농안내

□ 당을 올리려면

- 2차 낙과후 해피한그린 25말+글루칼(포도당 칼슘)50말→일주일 간격 2회엽면시비(농약 혼용가능)
- 색이 변할때(노지감굴인 경우 10월초)해피한 그린 25말+글루칼 25말 일주일 간격 2~3회 엽면시비

□ 양념막(감굴속 내피)을 부드럽게 하려면

- 1차, 2차 낙과후 하이휴믹(천연가리)2번 엽면시비

□ 부피과 방지 하려면(만감류인 경우)

- 9월부터 송풍기 가동해 아침 이슬이 맺지 않도록 할것
- 7월부터 한라봉인 경우 15일에 한번 글루칼 50~100말 엽면시비 다른 만감류는 30일에 한번 엽면시비

□ 산이 높고 당이 떨어졌을때(하우스 감굴포함 수확 20일전)

- 50말에 해피한 그린 3병+글루칼 2포 3~4일간격 3회 엽면시비

(주)포트라 제주시사
금탕이감굴유통상사

제주시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濟)州(州) 리모델링
辛(辛)一(一)祚(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특화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시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